

봄빛따라 떠나는 도심 속 '문화 나들이' 기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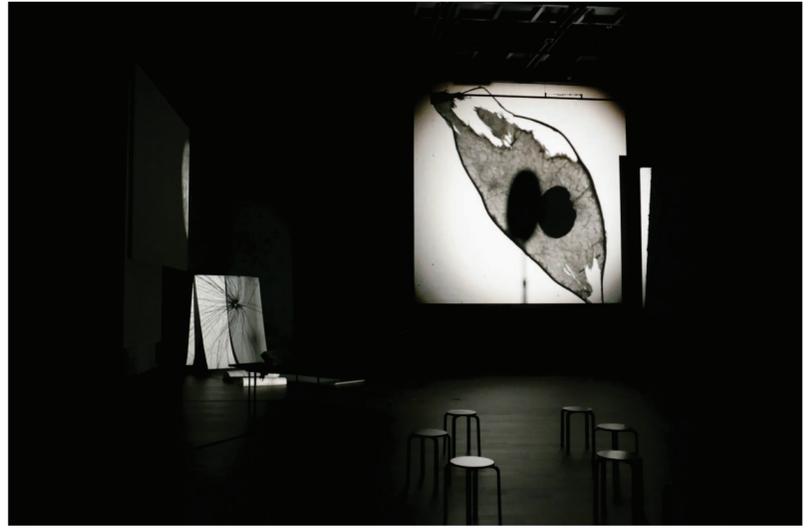
28~29일 음악회·실험연극·전시 등 행사 '다채' 미술관부터 예술의전당까지... 감성 충전 기회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3월 마지막 주말, 광주 곳곳에서 공연과 전시가 잇따라 열리며 시민들을 문화 나들이로 이끈다. 미술관 음악회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공연부터 연주회와 청년예술인들의 실험연극, 회화전과 영화 전시까지 다채롭다. 짧지만 선명한 봄의 시작점에는 가까운 공연장과 전시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도시 곳곳에서 피어나는 문화의 온기가 계절의 변화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먼저 28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로비에서는 '미술관 음악회'(Concert in the Arts)가 열린다. 박도벤으로 활동하는 파페라 가수 박원 씨가 기획, 무대를 준비한다. 바리톤 염종호를 비롯해 기타·아코디언 듀오 러브썬, 반도네온 연주자 김태은, 통기타 연주자 문은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참여해 전시 공간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나눔 음악회로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는 '제32회 선클라비어 정기연주회

미술관음악회'가 진행된다. 고전 회화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포스터에서 엿볼 수 있듯, 클래식 음악과 시각예술의 감성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미술작품 앞에서 '이 그림 속에는 어떤 소리가 흐르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전수아 클래식 큐레이터가 렉처 콘서트 형태로 꾸민 이번 무대는 모리스 라벨의 '물의 희롱'과 구스타브 클리프의 '아타제 호수',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와 잭 베틀리아노의 '노래하는 집사', 윌리엄 불컴의 '뱀의 키스'와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여인', 발레리 가브리엘의 '내 손을 위한 스케치'와 에드가 드가의 '발레 수업', 프레데릭 쇼팽의 '혁명'과 들라투아이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등 클래식 음악과 서양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엮는다. 다양한 연주자들이 시대와 작곡가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서정성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튿날인 29일 오후 7시 30분에는 광주 예술의전당에서 플루티스트 지아 셸의 세 번째 리사이틀 'SEQUENCE 03: Layered'가 관객을 만난다. 플루트를 중심으로 피아노, 클라리넷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와 폴랑크, 콘네송 등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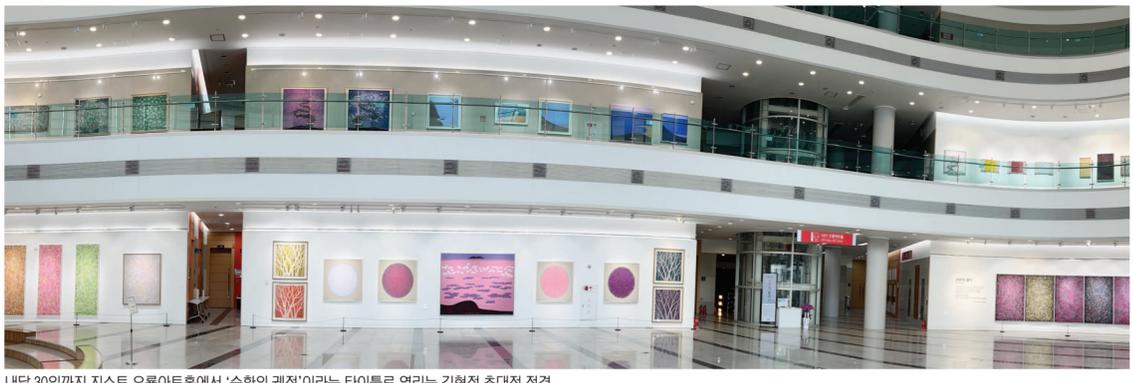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3월 마지막 주말, 광주 곳곳에서 공연과 전시가 잇따라 열리며 시민들을 문화 나들이로 이끈다. 사진은 최근 개막한 ACC필름비디오 '아시아의 장치들'에 출품된 임고은 작 '그림자 숲-무리달 테의 궤적'.

양한 작곡가의 작품을 통해 섬세한 음색과 앙상블의 매력을 선사한다. 타이틀인 '겹(layered)'처럼 서로 다른 음향이 쌓이며 만들어내는 음악적 구조 속 감동을 안겨준다. 또 같은 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아틀리에1에서는 관객 참여형 연극 '꿈의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가 준비된다.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어느 날, 한 통의 제보가 도착하고, 정의일보의 수습기자가 사람의 눈을 연구하는 꿈의 연구소에 잡힌 채 취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관객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가 돼 공간을 탐험하고 단서를 발견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추적하며, 관객이 어떤 단서를 발견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간다.

이외에 전남대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등 문으로 구성된 전통과 형상회 회원 31명이 참여한 기획전 '해존: 받아 간직하여 주십시오'가 오는 29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최근 개막한 ACC필름비디오 '아시아의 장치들'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2관에서 각각 펼쳐진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내달 30일까지 지스트 오룡아트홀에서 '순환의 궤적'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김혁정 초대전 전경.

공간 얽매이지 않고 사유... 존재의 문제 탐색

그의 작품하면 '천불동 인상'이 강렬하게 각인돼 있다. 그것은 아마 그가 파리에서 서양미술을 공부하던 중 동양미술을 깊이있게 탐색하지 못했다는 깨우침이 뒷받침돼서 아닐까. 운주사 천불전탑으로부터 오랜 역점의 시간들을 내밀하게 사유하지 못한데서 온 자성이 아니었다 싶다. 그는 서양의 기억과 동양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극단의 경계를 서로 상보시키고 맥락을 짚어 내면서 화폭의 깊이를 더해왔다는 측면에서 그의 회화에는 예상치 못한 결기가 흐른다. 때로는 직선과 곡선이 서로 다른 데를 지향하면서 혼재하는 가 하면, 또 조화를 이루는 등 오히려 화폭을 일궈가고 있다. 주인공은 운주사와 파리라고 하는 사유 지점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회화적 성장과 깊이를 쌓았다. 다져온 김혁정 서양 회화(전 여수 한영대 교수)가 그다. 파리에서 운주사에 대한 느낌과 한국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불상과 탑에 의존해 인간의 본성인 회로예학을 표출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동서양의 만남을 꾀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그가 지스트(GIST) 오룡아트홀에서 초대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순환의 궤적'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순환의

서양화가 김혁정 초대전 지스트 오룡아트홀서 내달 30일까지 47점 출품... 강연 4월 8일 진행

궤적'은 자연과 우주 그리고 존재의 문제가 자신의 궤적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에 비로웠다. 지난 3월 개막된 이번 전시는 구상과 추상을 망라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백꽃 피던 날', '섬으로 떠돌아 꽃으로 피어나라' 등 20호에서 200호에 이르기까지 총 47점이 출품돼 선보이고 있다. 작품은 대개 2010년 전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망라돼 있다. 비교적 그의 근래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로 손색이 없다. 이번 전시는 임기철 총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작가와 오룡아트홀의 인연은 깊다. 2022년 12월 '섬으로 떠돌아 꽃으로 피어나라'라는 주제로 한 개관전(12.21~2023.1.31)을 장식했던 작가가 그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와 오룡아트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오룡아트홀에서만 두번째로 여는 전시다. "그림은 문학 그 이상의 언어를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느껴왔다"고 말한 바 있는 그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작품이 대작들 위주가 아니라는 물음에 사람

들이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작품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그는 전시장이 하나의 우주일 수 있고, 작품들이 유성일 수 있다. 작품이 유성처럼 공간을 떠다닌다고 생각하며 사유를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또 작가는 사실 속에서 추상이 나오고, 추상에서 리얼리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작품의 진폭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자리가기도 하다. 작가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첨단과 광주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의 한 축을 문화가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전시가 그 거리를 좁혀주는 기능을 했으면 한다는 속내다. 아울러 문화도시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이 시민들인 만큼 직접 전시장을 방문해 마음과 정신을 일깨우는 촉매 역할도 수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상 명예교수(숙명여대)는 "우주를 화폭에 담아내는 마음과 서러운 넋을 꽃으로 풀어내는 마음이 하나다. 사람과 사회를 깨우는 화가의 열정은 이렇게 화폭에 펼쳐진다"면서 "그의 그림은 자연과 사회를, 하늘의 변화와 사람의 속내를



날마다 그대로 끝이 안연며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의 그림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진솔한 열정과 노력이 자신만의 조형예술로 나타나, 바로 작가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이어 임기철 총장은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면 예술은 그 세상을 아름답게 채우는 빛이다. 개관 때의 초심을 기억하며 오룡아트홀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 해준 작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개관 당시 작가가 붓끝으로 담아낸 사계절의 풍경과 따뜻한 그림편지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연이 건네는 다정한 안부인사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전시가 여러분께 잠시나마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자연과 내면이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혁정 작가는 전남대와 동대학원을 거쳐 프랑스 유학을 떠나 파리 소르본느 1대학에 조형미술학을 공부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오는 4월 8일 마련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전통의 맥 잇는 국악 올림 이어가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국악원 전악당에서 더듬공작소 초청공연 '이어가(畵)다'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의 노래(歌)를 오늘의 감성으로 이어가며, 국악이 지닌 본질적 아름다움을 새롭게 노래한다. '이어가다'라는 말속에는 전통의 맥을 잇고, 삶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나다'와 '오로라'를 연주하며, 옛노래와 접미어의 서정적인 선율을 바탕으로 노래한 '나의 바다', 마지막으로 나뉜 기운을 찾아내고 깊은 운만 받을 수 있는 '액막이 타령'을 재해석한 '더듬액막이'로 무대를 채운다. 공연을 선보일 더듬공작소의 '더듬'은 판소리 용어로 기존 대목에 자신의 맥을 잇고, 삶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더듬공작소는 단

국립남도국악원, 28일 오후 3시 전악당서 더듬공작소 초청... 자작곡 '오로라' 등 선택

전통 민요와 단가를 기반으로 한 선율 위에 현대적인 소리가 결합되며, 각각의 곡은 인간의 감정과 자연의 리듬, 시간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풀어낸다. 서로 손을 맞잡고 등글게 들며 놀았던 '강강술래'를 재해석한 '강강수월래'를 시작으로 신민요 '행 따라 가세'와 '봄노래'의 가사를 모티브로 작곡한 '봄이로구나', 사철가를 재해석한 '봄명곡, 봄이로구나', 민요 풍년가를 재해석한 '풍년가' 등으로 무대를 꾸민다. 이어 더듬공작소의 자작곡인 '피어



정재경 기자 view2018@